

TV 2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list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across different channels.

“킬미힐미’ 후폭풍 겁나

헤어 나오기 힘들 듯”

연기 인생 16년 절정맞은 여수 출신 배우 지성



“사실 후폭풍이 클 것 같아 되게 겁나요. 나중에 생각이 날 텐데, 그때가 되면 헤어 나오기 힘들 것 같아요.”

여수 출신 배우 지성(38·사진)이 담담하게 진행해나가는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고백을 했다. 지성이야 실감도 안나고 다 바꿔나 명한 상태지만, 7가지 인격을 가진 범상치않은 캐릭터를 연기한 배우가 쓰레기통을 한 번에 말끔히 비워내듯 자신을 리셋(reset) 하려면 말처럼 쉽지 않을 터다.

MBC ‘킬미힐미’를 통해 연기인생 16년의 절정을 맞이한 지성은 최근 인터뷰에서 “현실에서 곧 아베가 되기에 빨리 차도 현이라는 캐릭터를 떠나보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1999년 SBS ‘카이스트’로 데뷔한 지성은 ‘울인’ ‘왕의 여자’ ‘애정의 조건’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 ‘뉴하트’ ‘태양을 삼켜라’ ‘김수로’ ‘로열 패밀리’ ‘보스를 지켜라’ ‘대풍수’ ‘비밀’까지 수많은 드라마를 맡아왔다. 일찌감치 한류라는 배우로 올라섰지만, 욕심과는 달리 ‘한방’이 터지지는 않았다. 그러다 잊고 있던 순간 ‘킬미힐미’가 터졌다.

지성은 “인기와 관심을 너무나 바랐을 때는 오지 않더니 다 내려놓으니 이런 날이 온다”고 담담히 말했다.

배우가 되고 싶어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전라도에서 상경한 지성은 배우가 되기 위해 세트장에 몰려 들어가 대본을 훑

치는가 하면, 잘 곳이 없어 지하철역(여의나루역)에서 노숙을 하기도 했다. 반듯한 이미지와 달리 밀마닥 경험도 해봤고, 늘 자신보다 위에서 각광받는 스타들을 보며 타는 욕망도 느껴봤던 그 세월이 있었기에 오늘날 7개의 인격 연기가 가능했고, 그에 따른 찬사도 거머쥌 수 있게 된 것이다.

지성은 ‘킬미힐미’를 통해 평생 받을 찬사를 한꺼번에 받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그는 늘 노력하는 연기자였고, 준비된 배우였다. 아무리 기다려도 ‘찬란한 순간’이 오지 않았을 뿐이다.

1999년 데뷔 때부터 하나하나 계단을 밟으며 올라왔고 마침내 ‘좋은 배우’가 됐지만 특급 스타가 되기에는 늘 5%가 부족했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이기도 했고, 운이 안 따르서이기도 했다.

“때가 온 것 같아요. 저도 길다면 긴 연기 인생을 보내면서 조금씩 쌓아온 게 있고 그러면서 한결 여유로워진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하면 제 연기에 집중할 수 있는지를 이제는 알게 됐어요. 7가지 인격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인격을 집중해서 연기해야 했는데 그게 가능해진 거죠.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연기를 해낸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지금이니까 가능했던 것 같아요. 저도 방향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지금보다 빨리 차도현을 만났다면 이만큼 못해냈을 겁니다.”

“제가 페리박을 연기할 때 가장 애드립을 많이 했는데 마지막 대사로 애드립이었어요. ‘늘 웃고 좋은 생각만 하소. 딱 한번 사는 인생이네. 건강하소.’ 그 대사에 제 마음을 담고 싶었어요. 함들어도 힘내며 웃고 싶어서 사람들이 위로하고 싶어요.”

그렇게 바랄 때는 오지 않던 인기와 찬사가 마음을 비우니 이제 왔다는 지성은 맥주 한잔을 앞에 놓고 침을 꿀꺽 삼키기만 했던 페리박의 절박한 마음을 연기하면서 남의 일 같지 않아 마음이 켜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런 시간들을 통과해 오늘에 이른 자로서 사람들에게 힘을 내라고 말하고 싶었다고 한다.

“킬미힐미”는 제가 배우로서 존재하고 있구나 느끼게 해준 작품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정말 만족합니다. 또 이번 연기를 하면서 제 마음도 치유된 작품이에요. 저는 그동안 저를 사랑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저를 사랑할 줄 알게 됐어요. ‘너 그동안 정말 잘했다’는 말을 제게 하고 싶어요.” /연합뉴스

영·호남 화합 위해 손 잡은 지역 방송사

광주·대구MBC ‘달빛아래 징검다리’ 방송

영호남의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상생과 교류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양 지역을 대표하는 방송사가 지역민의 화합을 위해 손을 잡았다.

광주MBC와 대구MBC가 영호남의 화합을 위해 공동으로 정규편성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고 있다.

지난 21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8시(대구MBC는 월요일 오후 6시) 방송되는 새 프로그램 ‘달빛아래 징검다리’(연출 백재훈·사진)는 달구벌 대구와 빛고를 광주를 중심으로 한 영호남 지역의 화합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광주MBC와 대구MBC가 공동 제작하는 이 프로그램은 전라도와 경상도의 MC로 구성된 두 팀이 서로 상대 지역의 농어촌을 찾아가는 내용이다. 리포터와 진행자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김태일 씨와 보성 서편제의 맥을 잇는 소리꾼 김다희 씨가 경상도 곳곳을, 또 이정영, 오승철 씨가 전라도의 마을을 두루 찾아가며 주민들의 삶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아낸다. 지난 21일 첫 방송에서는 영호남 주민들의 만남의 장소이자 화합의 상징인 남도대교와 화개장터에서 그 표문을 열었다.



정식 재개장을 앞두고 있는 화개장터에서 뽕튀기 집, 장터국수 집, 엿장수 공원 등 정겹고 재미있는 장터의 풍경을 재미있게 전했다. 또 영호남의 첫 번째 마을로 백운산 고로쇠의 주산 지인 광양 동동마을과 반달곰 마을로 알려진 하동 의신마을에서의 생생하고 솔직한 이야기를 나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대박 신화 tvN ‘삼시세끼’ 종영
어촌편 마지막회 시청률 9.2%

매회 큰 화제를 모은 tvN ‘삼시세끼-어촌편’이 20일 막을 내렸다. 마지막회 시청률은 9.2%(닐슨코리아 케이블, 위성, IP-TV 통합), 순간 최고 시청률은 10.9%로 자체 최고치에는 못 미쳤지만 끝까지 케이블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대박 신화를 이어갔다.

‘요리의 신’ 차승원을 중심으로 뒤편이 딱딱 만들어내는 유해진과 순박한 ‘머슴’ 손호준의 찰떡궁합을 보여준 ‘삼시세끼-어촌편’은 지난해 방송된 이서진-옥택연의 ‘삼시세끼-정선편’의 반외편으로 선보였지만 순식간에 분량을 압도하며 ‘삼시세끼’의 대명사가 됐다.

지난 1월23일 시작한 ‘삼시세끼-어촌편’은 1회에서 바로 9.8%를 기록한 데 이어 5회에서는 평균 14.2%, 순간 최고 16.3%로 tvN 역대 최고 시청률을 갈아치우는 등 지상파도 깜짝 놀랄 만한 성과를 냈다. 이로 인해 도중에는 금요일 밤 시청률 왕좌



를 지켜온 SBS TV ‘정글의 법칙’도 위협했다. ‘삼시세끼-어촌편’은 20일 방송에서 만재도 촬영 2개월 후 서울에서 다시 만난 차승원, 유해진, 손호준이 즉석요리를 해 먹으며 회포를 푸는 모습과 함께 만재도 촬영분의 미방송분을 보여줬다. 이들은 총 3번에 걸쳐 16일 동안 만재도에서 촬영을 했으며 현장에서 만든 요리의 가짓수가 무려 83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시세끼-어촌편’의 후속으로는 27일부터 ‘꽃보다 할배 인그리스’가 방송된다. /연합뉴스

EBS 1

Table listing EBS 1 programs with columns for time, program name, and details.

EBS플러스1

Table listing EBS Plus 1 programs with columns for time, program name, and details.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Table providing horoscope information for various zodiac signs (子, 午, 未, 申, 酉, 戌, 亥) with columns for the sign, a brief description, and the lucky number.